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제62호 (2020.3) pp. 33~59 10.21482/jbs.62..20203.33

나옹과 오대산 북대

황인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역사교육과 교수
hwing@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II. 나옹의 오대산 입산 동기
III. 나옹의 오대산사 주석·중창
IV. 나옹과 오대산 북대 불교
V. 나가는 말

요약문

본 논문은 고려말 고승이자 삼화상인 나옹 혜근이 오대산 사찰에서 주석하고 중창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후, 오대산의 북대의 불교가 지니는 불교사적 의의를 검토한 연구이다.

나옹은 전국의 지방을 유력하다가 고대 불교의 상징인 오대산의 사찰에 두 차례 머물렀다. 나옹은 출신 산문인 사굴산문의 발상지인 오대산에 머물면서 그의 스승 지공의 유지를 받들어 양주 회암사를 중심으로 홍법하기 앞서 오대산의 불교를 중흥하려고 한 듯하다.

나옹은 현재의 미륵암인 오대산 북대에 위치한 상두암에 머물렀으며, 이 때 양평 용문산에서 머물고 있던 중국의 임제종의 고승 고담과 교유했으며, 오대산의 고운암을 중창하고 신성암에 머물렀던 승려 환암 혼수와 교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대산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오대산에서 중국 임제종 고승의 선풍을 선양하고 환암이 나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옹은 후에 다시 오대산 남대의 남쪽의 영감암에서 다시 머물면서 오대산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그 뜻을 다짐했던

듯하다.

관련 사료에 의하면 나옹은 오대산 중대에서 게송을 남겼으며, 삼인봉을 바라보며 수도하였으며, 북대의 미륵암에 머물면서 그 부근의 나옹대에서 적멸보궁을 향하며 수행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작성되어 사료적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오대산사적기』에 의하면 나옹은 북대에 위치한 도솔암과 동대에 위치한 관음암을 중건하였다고 전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주석하였던 듯하다.

나옹은 오대산 중대에 흐르는 옥계수를 바라보며 시를 남겼는데, 오대산의 중심인 중대에 위치한 상원사에서 불교를 흥성하고자 다짐했던 듯하다. 그의 그러한 뜻은 그의 문도들에게 계승되어 여말 선초기 오대산 불교를 중흥하게 하였다.

주제어
나옹, 나옹의 문도, 오대산, 북대, 고운암

I. 들어가는 말

나옹은 여말삼사인 태고 보우와 더불어 고려말 불교계를 주도하면서 불교계 쇄신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최고의 증명법사로 추앙받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나옹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이 이루어졌으나[1] 오대산 행적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천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

---

1) 나옹에 관한 최근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허흥식, 「나옹의 사상과 계승자」상·하, 『한국학보』 제58·59집(서울: 일지사, 1990) ; 이철헌, 『나옹혜근의 연구』(서울: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 김창숙, 『나옹의 선사상 연구』(서울: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연구』(서울: 민족사, 1999) : 강호선, 「고려말 나옹혜근 연구」(서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자현(염중섭), 『한국 선불교의 원류 지공과 나옹 연구』(서울: 불광출판사, 2017).

2) 최근에 나옹과 오대산과 관련하여 천착된 논고가 발표되었으나(염중섭, 「나옹에게서 살펴지는 '오대산불교'의 영향—나옹의 오대산행과 문수화엄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제39집(서울: 온지학회, 2014), 오대산 불교의 실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오대산사에 관한 연구가 진척된 바 있다. 황인규, 「조선시대 오대산사와 고승」(평창: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기념세미나, 2011.10.13.) ; 황인규, 「여말선초 나옹문도의 오대산 중흥불사」, 『불교연구』 제36집(서울: 불교연구원, 2012) ; 황인규, 「조선 중기 월정사와 상원사·적멸보궁」, 『역사와 교육』 제14집(서울: 역사와학회, 2012). 본고는 2019년 불교학연구회·오대산 북대 공동주최 학술대회 '조계종 중흥조와 오대산 북대'(2019.10.19, 조계사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발표한 원고 가운데 나옹과 오대산 부분을 확대 정제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 동안 나옹의 행적을 비롯해 오대산, 양평 용문사 등의 활동, 나옹의 문도, 유물과 유적 등에 관련하여 검토된 바 있다.[3)]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나옹의 오대산사 주석과 중창, 그리고 오대산 북대 불교[4)]의 주석과 중창이 갖는 불교사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나옹의 오대산 입산 동기

『나옹화상어록』과 나옹의 행장및 비문 등에 의하면, 나옹은 1360년 무렵 오대산 상두암에서 중국의 임제종 고승 적조 현명(寂照玄明)과, 고운암에서 환암혼수와 교유하였으며, 1369년 무렵 오대산 영감암에 주석하였다.

그 외의 기록에 의하면 나옹은 북대 상두암과 남대 아래의 영감암 뿐만 아니라 중대 상원사및 나옹대에 주석하였다. 특히 북대 고운암을 창건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작성된『오대산 사적기』[5)]에 의하면 북대 도솔암과 동대 관음암을 중건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옹의 행적 가운데 오대산에 주석한 기록으로 가장 구체적인 것은 나옹의 행장과 탑명이다. 즉, 탑명에는 '무술년(1358년) 봄에 지공에게 수기(授記)를 받고 귀국한 후 인연에 따라 명산에서 설법하다가, 경자년(1360년)에는 오대산에 들어가 머물렀다.…기유년(1369년)에 다시 오대산에 들어갔다.'[6)]고 되어 있으나 행장에는 좀 더 자세하다.

---

3)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허흥식, 앞의 글 ; 황인규,「나옹혜근과 그 대표적 계승자 무학자초」,『역사와교육』제5집(서울: 역사와교육학회, 1997); 황인규,「나옹혜근의 불교계 행적과 유물 유적」,『대각사상』제11집(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8).

4) 본고에서 오대산 북대 불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편의상 사용한 것이다. 연구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북대 불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5) 여기서 말하는 오대산 사적지는 최근에 역주 발행되었다.『역주 오대산사적기』(韓國木簡學會 編,『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平昌: 五臺山 月精寺, 2014).

6) 李穡,「普濟尊者謚禪覺塔銘并序」,『朝鮮金石總覽』上, '戊戌春 辭指空 得授記東還 且行且止 隨機說法 庚子入臺山居焉…己酉再入臺山.'

나옹이 오대산에 처음으로 머물게 된 것은 귀국후 1360년 무렵이었다. 나옹은 1358년 3월 23일 원의 대도 법원사에서 지공과 하직 인사를 하고 랴오양[遼陽]을 거쳐 평양과 동해 등 여러 곳을 유력하다가 1360년 가을에 오대산에 들어가 상두암(象頭菴)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옹은 평양 광법사(廣法寺), 안심사(安心寺)[7]에서 며칠간 머물고 지금의 양양인 양주(襄州)로 갔으며[8], 관동의 승경지인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총석정과 국도(國島)에 머물기도 하였다.[9] 그러면서 강원도 고성의 상서(尙書)와 회양부사와도 교유하였다.[10] 무학의 비문에 의하면 나옹은 동해 뿐만 아니라 귀국후 천성산(天聖山) 원효암(元曉菴)에서도 머물렀다.[11] 즉, 나옹은 먼저 귀국한 무학이 주석하였던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면서 지공의 삼산양수의 땅에 흥법하라는 수기를 가지고 오대산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곧바로 삼산양수의 땅인 회암사에 가지 못한 것은 당시 불교계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얼마 후 자장이 흥법한 오대산에서 잠시 머물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12]

---

7) 이색, 「安心寺舍利石鐘碑」, 『조선금석총람』 상, '吾師 自西京廣法寺始 至正戊戌歲也.'

8) 「安心寺作」, 『懶翁和尙歌頌』, '忽到安心三兩日 身心歇了向襄州.'

9) 「和叢石亭韻」, 『懶翁和尙歌頌』 : 「題東海國島二首」, 『懶翁和尙歌頌』 ; 安軸, 「鏡浦新亭記」, 『謹齋集』 卷1, 記, '歷觀奇勝 彼國島叢石亭.'

10) 「和高城安尙書韻 二首」, 『懶翁和尙歌頌』; 「謝淮陽李副使林 閒垂訪」, 『懶翁和尙歌頌』.

11) 변계량, 「묘엄존자탑명」, 『조선금석총람』 하 ;『春亭集』 續集, 卷1, 銘, '師旣還 懶翁 亦以指空三山兩水授記還國 住天聖山元曉菴.' 天聖山은 여러 곳이 있다. 즉, 평안도 평안도 은산현에 있으며 天聖寺라는 사찰도 있으며(『신증동국여지승람』 권55, 平安道 殷山縣 山川·佛宇), 개성에도 天聖山이 있으나(성해응, 「天聖山」, 『研經齋全集』 卷51, 山水記 下 記畿路山水, '天聖山混然一山'), 원효암은 없다. 천성산은 같은 발음의 千聖山이 경상도 양산에 圓寂山 또는 소금강산이라고 불리웠으며(『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상도 양산군 산천) 원효의 '擲盤救衆' 설화가 깃든 곳 가운데 하나이지만(『宋高僧傳』 卷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或擲盤以求衆' ; 「擲板臺記」) 원효암은 없다. 그런데 원효암은 묘향산에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나옹이 묘향산 금강굴에 주석하였다고 하였으나(曺好益, 「遊妙香山錄」, 『芝山集』 卷5, 雜著, '朝過圓寂 至金剛窟 寬曰 此懶翁所居也') 행장이나 비문에는 나오지 않고 무학이 머물다가 지공을 참예하러 기기 직전에 수행한 곳이다(변계량, 「묘엄존자탑명」, 『동문선』 권121, 비명). 그 인근에 원효암이 있지만 나옹과 지공이 머문 곳이 묘향산 원효암일 듯하지만 천성산이 아닌 묘향산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필자는 천성산이 양산 천성산으로 보아왔지만(황인규, 「무학자초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검토」, 『한국불교학』 제23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7), p.193) 재고의 여지가 있다. 최근에 천성산 원효암이 평안도 서북쪽 지역이며 평안도 은산이나 영변일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바이나(강호선, 앞의 글, p.121 및 각주 16), 확실하게 실증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다.

12) 이러한 나옹의 오대산 입산 동기에 관련한 사료적 근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향후 보다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와같이 나옹은 천성산 원효암에서 제자 무학과 함께 머물다가 1360년부터 이듬해까지 오대산에 주석하였다.[13] 무학과 함께 원에 유력한 도반 축원 지천(竺源智泉)은 오대산에 머물렀으나[14] 정작 무학은 오대산에 머물지 않았다. 무학과 축원은 원에서 나옹의 행적을 추종하면서도 나옹이 가지 않은 원의 오대산을 유력하였다.[15] 축원은 '오대산에 들어가 벽봉(碧峯)화상을 참예하였는데, 그때 명사(名士)인 조중목(趙仲穆)이 사(師)에게 축원(竺源)이란 두 대자(大字)를 전서(篆書)로 써 주면서 법호을 주기까지 하였다.'[16]

그렇다면 왜 나옹은 원에서 오대산에 유력하지 않았는데 고려의 오대산에 주석하였고 무학은 원의 오대산에 유력하였지만 도반인 축원과는 달리 고려의 오대산에는 주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문에 의하면 무학은 귀국후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렀는데 나옹이 방문하여 불자를 주어 제자임을 표하였으며, 그 후 해주 신광사에서 다시 조우하였으나[17], 무학은 오대산에서 스승 나옹과 함께 하지 않았다. 다만 나옹은 원에 유력하는 문인에게 '남쪽에는 천태산, 북쪽에는 오대산[18]'이라는 가송을 통해 원의 오대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그러면 나옹이 오대산에 입산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무엇일까?

>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山水속에 자취를 감추었는데, 왕이 사(師)의 이름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와주십사 하여 만나보고는 공경하여 신광사(神光寺)에 머물게 하였다.[19]

---

13) 覺宏錄, 「나옹행장」, 『나옹화상어록』 ; 李穡, 「普濟尊者謚禪覺塔銘幷序」, 『東文選』 卷119, 碑銘, '경자년에는 臺山에 들어가 있었다.'

14) 權近, 「追贈正智國師碑銘 竝序」, 『陽村集』 卷38, 碑銘類 : 『朝鮮金石總覽』 卷下, '還國 入香山 歷五臺小白智異彌智等諸山.'

15) 卞季良, 「朝鮮國王師妙嚴尊者塔銘 幷序」, 『春亭續集』 卷1, 銘, '到法泉寺 參懶翁 懶翁一見而深器之 遊霧靈歷五臺 再見懶翁於西山靈巖寺.'

16) 權近, 「追贈正智國師碑銘 竝序」, 『陽村集』 卷38, 碑銘類 : 『朝鮮金石總覽』 卷下, '又往五臺山 謁碧峯和尙 有名士趙氏仲穆 爲書竺源古篆二大字以贈 師之號也.'

17) 변계량, 「묘엄존자탑명」, 『春亭續集』 卷1, 銘 : 『조선금석총람』 하, '己亥夏 師往見 翁以拂子與之 翁在神光寺 師亦往焉,'

18) 覺雷錄, 「送初禪者叅方」, 『懶翁和尙歌頌』,'南有天台北五臺.'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나옹이 해주 신광사에 머물 무렵인 1363년(공민왕 12) 7월에 지어진 『나옹화상어록』의 서문에서 신광사를 언급하면서도 바로 직전에 머물렀던 오대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어록이 신광사에서 제작[20]된 때는, 나옹이 1363년 7월에 '재삼 글을 올려 (신광사) 주지직을 사퇴하려 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사(師)는 스스로 빠져 나와 구월산 금강암으로 갔다가 공민왕의 회유로 인해 그 해 10월에 다시 신광사로 돌아와 2년간 머물렀다'[21]고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기록이 나옹이 오대산에 주석한 사실을 경시했다기 보다는 신광사를 더 중요하게 간주하여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옹이 오대산을 거쳐 신광사에서 머물 무렵인 1363년에 지어진 「나옹화상어록서」에 의하면, 행촌(杏村) 이암(李嵒, 1297-1364)이 담암(淡庵) 백문보(白文寶, 1303-1374)에게 '나옹은 연도(燕都)에 가서 유학하고 또 강남에 가서 지공과 평산의 법회에 참여하여 법의와 불자[麈尾]를 전수받아 불법에 있어 공력을 쌓은 지가 오래되었다'[22]고 한다. 나옹의 입적 후인 1379년에 지어진 『나옹화상어록』의 서(序)에 목은 이색(1328-1396)은 '현릉의 스승 보제존자는 서천 지공과 절강 서쪽의 평산에게서 법을 이어받아 종풍을 크게 펼쳤다[23]'고 하여 지공과 평산으로 부터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나옹이 평산에게 '회암(檜岩)의 판수(板首)'라고 지칭 받은 것이나[24] '지공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회암사가 위치한) 산수의 형세가 완연히 천축국 날란다[阿蘭陀]寺와 같다."'[25]고 했듯이 회암사 터를 강조하여 지공

19) 白文寶, 「懶翁語錄序」, 『淡庵逸集』 卷2, '及東還 晦跡山水間 王聞其名 遣使永致 接見旣敬 俾住神光寺.'

20) 이 때에 지어진 것은 『나옹화상어록』 초간본이다.

21) 覺宏錄, 「나옹화상 행장」, 『나옹화상어록』, '癸卯七月 再三上書辭退 上不允師自抽身而出 到九月山金剛菴 上遣內侍金仲孫 特降內香 又勅西海道指揮使朴曦 按廉使李寶萬 海州牧使金繼生 强師復住 師不獲已 十月還山 留二載.'

22) 白文寶, 「懶翁語錄序」, 『淡庵逸集』 卷2, 序, '杏村李嵒 示余以懶翁之錄曰 懶翁往遊燕都 又入江南 得參指空平山 授以法衣麈尾 於佛法 旣積力久.'

23) 李穡, 「普濟尊者語錄後序」, 『牧隱文藁』 卷9, 序 : 『東文選』 卷87, 序 ; 이색, 「普濟尊者語錄 序」, 『나옹화상어록』, '玄陵之師普濟尊者 嗣法於西天指空 浙西平山 大闡宗風.'

24) 覺宏錄, 「나옹행장」, 『나옹화상어록』, '忽見平山處林禪師… 頌曰 檜巖板首罵雲門 百萬人天一口呑.'

이 내린 수기에 담긴 내용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하였다고 생각된다. 나옹은 스승 지공이 흥법의 터로 지목한 양주 회암사 터나 지공이 관심을 크게 가진 금강산 등지를 유력하다가 오대산에서 주석한 것은 오대산이 흥법의 터로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금강산은 법기보살이 상주한다고 하여 지공이 방문하였으며 나옹도 후에 유력하지만[26] 오대산처럼 당시 불교계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27]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오대산은 신라의 결사 이래 수 많은 고승 대덕들이 유력 또는 구법을 하였던 명산이다. 오대산은 나옹이 활동하던 당시의 선종계 뿐만 아니라 교종계에서도 주목하였던 듯하다. 예컨대 천태종의 부암 무기(浮菴無寄)[28]와 천태종 판사 나잔자(懶殘子)의 제자 휴상인(休上人)[29]도 오대산에서 불사를 하고자 하였다. 휴상인은 "법보가 일단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내 나이가 벌써 60에 가까운 만큼 혹시라도 받들어 간수하는 데에 소홀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걱정거리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차 오대산에 안치하고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까 하니, 선생이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한다."[30]고 하였다.

천태종계 고승 뿐만 아니라 고려의 마지막 화엄종 국사로 책봉되는 설산 천희(1307-1382)도 오대산에서 몽산 덕이에 대한 꿈을 꾸고 중국을 유력하였

---

25) 李穡, 「天寶山檜巖寺修造記」, 『牧隱文藁』 卷2, 記 : 『동문선』 권73, 기, '昔天曆間 西天薄伽納提尊者 見此寺之基 以爲酷似西天阿蘭陁寺.'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경기 양주목 불우 회암사.

26) 나옹은 후에 무학과 함께 금강산을 유력하기도 하였다. 成錫璘, 「戲題僧詩 卷二首」 『獨谷集』 卷下, '懶翁無學曾歷參'. 「金剛山潤筆庵記」에 의하면 나옹은 1366년(공민왕 15) 무렵에 금강산 정양암과 金剛山 善住庵 등에 머물렀다. 이색, 「金剛山潤筆庵記」, 『목은문고』 권2, 기 ; 『동문선』 권73, 기 ; 李象秀(1820-1882), 김동주 편역, 「東行山水記」, 『금강산유람기』(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9). p.376.

27) 금강산이 불교계에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원 간섭기 이후이지만 오대산처럼 부각되지는 않았다. 김창현, 「고려시대 금강산과 그 불교신앙」, 『지역과 역사』 제31집(부산: 부경역사연구소, 2012), pp.201-211 ; 염중섭, 앞의 글, 2014, p.193.

28) 『釋迦如來行蹟頌』 下, '乃遊歷金剛五臺等名山勝地竟 到始興山卓一庵.' ; 『동사열전』 권1, 부암대사전.

29) 李崇仁, 「如大虛來言 三峴諸先生 若權祭酒柳狀元李舍人李兼博 唱和無虛日 且誦祭酒先生所作唐律二首及渠九日四首 和祭酒見訪一首 僕依韻走筆 奉呈祭酒先生 兼簡柳狀元 李舍人 李兼博 致僕所居僻陋 不得與於斯文之會之意 幸有以見敎」, 『陶隱集』 卷2, 詩, '三峴號多士 更聞休上人 風標眞似畫 景物自無塵 酒榼携應數 詩筒遞亦頻 明朝倘相喚 抵掌笑談新.'

30) 이색, 「贈休上人序」, 『牧隱文藁』 卷8, 序, : 『동문선』 권87, 서, '又曰 法寶旣成矣 吾年近六十 奉持或怠 則不可保其無他 將置之臺山 俾後之人有所守 願先生筆其事.'

다.[31] 앞서 언급했듯이 조계종의 고승 무학과 원에 함께 유력하였던 축원 지천(1324-1395)도 귀국후 오대산에 주석하였다.[32]

당시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이 전개되는 데다가 나옹은 사굴산문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대산에 머물고자 했을 것이다. 이미 연구된 바와같이 사굴산문은 신라말 범일(梵日,810-889)에 의해 강원도 굴산사에서 개산된 산문이다. 범일은 굴산사를 중심으로 40여 년간 주석하면서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사와 낙산사 등 일대에서 불교계 활동을 전개하였다.[33] 그 후 범일의 문도 낭원 개청(朗圓開淸, 854-930)과 낭공 행적(朗空行寂, 832-916) 등의 선사들이 사굴산문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즉, 낭원은 지장선원을 중심으로 오대산과 춘천·홍천·원주 일대에서, 낭공은 양양·평창·춘천·홍천·삼척 등 영동 일대에서 사세를 전개하였던 것이다.[34] 영동 지방 뿐만 아니라 중앙 불교계에서 사굴산문의 사세가 전개되었다. 예컨대 태조대에서 성종대 무렵까지 사굴산문승으로 활동한 여철(如哲)[35]은 선각국사 도선의 교시를 계승하여 비보사찰설에 의해 국가 운용의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여철은 고려 건국초의 불교계는 물론이고 최승로 상소문에 언급될 정도로 국가 운용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하였다.[36] 그 후 무신 집권기 초인 1234년(고종 21) 무렵[37] 선종계 9산문의 승려들이 회합하

---

31) 이색, 「창성사 진각국사 비」, 『조선금석총람』 상, '叅究禪旨 在小伯山 夢見 蒙山付其衣法 在金剛五臺亦如之此.'

32) 權近, 「追贈正智國師碑銘 竝序」, 『陽村集』 卷38, 碑銘類 : 『朝鮮金石總覽』 卷下, ' 還國入香山 歷五臺小白智異彌智等諸山.'

33) 『삼국유사』 권3,「五臺山萬眞身」: 『삼국유사』 권3, 「臺山月精寺五類聖衆」 .

34) 崔仁滾(868-944), 「太子寺郎空大師碑」, 『조선금석총람』 상, '以後 至五臺山投花嚴寺 求感於文殊大聖 先上中臺 忽遇神鬢眉皓爾 叩頭作禮膜拜祈恩.' 사굴산문의 郎空行寂(832-916)은 885년 귀국하여 오대산 사굴산문의 개조 梵日을 예참하여 심인을 받았다. 김두진, 「신라하대 굴산문의 형성과 그 사상」, 『성곡논총』 제17집, (서울: 성곡언론문화재단. 1986) ; 황인규, 「고려전기 사굴산문계 고승과 선종계」, 『한국선학』 제9집(서울: 한국선학회, 2004) : 황인규, 앞의 책, 국학자료원, 2011, pp.70-74.

35) 『高麗史』 卷93, 列傳 6 崔承老, '伏見 聖上遣使 迎屈山僧如哲入內 臣愚以爲 哲果能福人者 其所居水土 亦是聖上之有 朝夕飮食 亦是聖上之賜 必有圖報之心 每以祝釐爲事何煩迎致 然後敢施福耶 曩者 有善會者 規避徭役 出家居山 光宗致敬盡禮 卒之善會 暴死道傍 曝露其尸 如彼凡僧 身且取禍 何暇福人 請放哲還山 免致善會之譏.'

36) 『儒釋質疑論』 下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한국불교전서』 7, 서울: 동국대출판부, 1986, p.277-278. '粵有前朝王氏之統合也 幸承聖母道詵之遺囑 甘受洞中 如哲之指揮 假以佛法爲艾 … 裨補之設 至於三千 禪院之作 盈於五百.'

는 자리에서 여철의 위상을 부각시킨 것도 그 단적인 사례이다.[38]

그 후에 원진국사(圓眞國師)로 추증되는 승향(承逈,1171-1221)도 수선사의 지눌을 참방하고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에게 기도하기도 하였다.[3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옹은 사굴산문의 전통을 계승하여 사굴산문의 근거지였던 오대산에 머물며 흥법을 다지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40]

III. 나옹의 오대산사 주석·중창

다음으로 나옹이 오대산에 머물렀던 행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옹의 행장 외의 기록에 의하면 나옹은 오대산 북대 상두암과 남대 아래의 영감암 뿐만 아니라 오대산사에 주석한 사실이 찾아진다. 『나옹화상어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법당에 올라가 향을 사뤄 황제를 위해 축원한 후 법좌에 올라 말씀하였다. "산승은 오대산을 떠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일을 다 말하였다."[41]

---

37) 甲午年은 이규보(1168-1241)의 생존시인 1174년과 1234년 인데 후자의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38) 나옹이 오대산에 머물게 된 이유나 사정에 대하여 '오대산은 고려의 수도인 開京과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금강산과 더불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聖山의 위상을 가진다. 또 인근 강릉에는 闍崛山門의 총본산인 崛山寺가 위치해 있다.'(염중섭, 앞의 글)는 견해에 공감이 가는 바이다.

39) 李公老(?-1224), 「청하 보경사 원진국사 비」, 『조선금석총람』 상, '遂往叅曹溪山 普照國師次決法要 後詣江陵郡五臺山 禮文殊 遂得冥感.'

40) 나옹의 대표적 계승자인 무학은 오대산에 나옹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무학은 곧 신광사에서 나옹과 함께 하였다. 나옹의 입적후 나옹의 문도들이 추념 불사를 전개하면서 오대산사를 중창하는 등 오대산 불교를 재현하고자 하였다.(황인규, 앞의 글 참조) 그리고 그 보다 후대인 조선 세조대이지만 무학 자초의 상수제자인 涵虛己和(1376-1433)가 1420년(세종 2) 가을에 오대산 영감암으로 들어가 나옹의 진영을 참배한 후 월정사에 머물렀으며, 북대에서 6-7리에 함허당이라고 하였다. 涵虛己和, 『涵虛堂得通和尙語錄』 行狀 : 『韓國佛敎全書』 7, '庚子秋季 入于江陵五臺山 誠脩香盖 供養五臺諸聖 詣靈鑑菴 薦盖懶翁眞影信宿其菴 夜夢有一神僧 從容謂師曰卿名己和 厥號得通' ; 丁時翰, 『山中日記』, '僧輩言涵虛堂距大寺六十餘里.'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옹과 문도및 문손들은 나옹의 뜻을 이어 받아 오대산 불교를 중요시하였다고 하겠다.

41) 覺璉錄, 「神光寺入院」, 『나옹화상어록』 : 『한국불교전서』 6, '次上堂拈香祝聖罷 陞座云 山僧未離 臺山

이에 의하면 나옹은 1361년(공민왕 10) 무렵 해주 신광사 주지로 재직하면서 오대산 법회 개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나옹화상어록』에 의하면 나옹은 신백(申白) 대선사가 63세로 돌아가자[42] 오대산에서 다비하였다고 한다.[43] 신백 대선사는 오대산에 주석하였던 고승이었던 듯하다.

후세인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나옹이 오대산에 주석하였던 사실은 확인된다. 즉, 사육신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1417-1456)은 1443년(세종 15) 2월에 양주 회암사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승려 설경(雪京)에게 시의 서문을 지어주면서 '오대산은 나옹이 거처하던 나가요(那迦寮)'[44]라고 하였다.[45] 조선 후기 유자들도 나옹의 오대산 자취에 대해서 상기하기도 하였다. 즉 『사기』의 「백이전」[46]을 1억 1만 3천 번이나 읽었다[47]고 서재 이름을 '억만재(億萬齋)'라고 하였던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나옹의 석장가(錫杖歌)를 지으면서 오대산 등을 유력하였다고 특기하였다.[48]

나옹이 북대 상두암에 머물렀던 사실은 역시 조선 후기의 기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해남 대흥사의 12대 종사인 연담 유일(1720-1799)이 남긴 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공민왕이 세 정승을 보내 오대산의 나옹을 예방케 하였

已前 早爲諸人 說破今日事了也.'

42) 覺璉錄, 「爲申白大禪師對靈小叅」, 『나옹화상어록』, '諸法從緣生 緣盡法還滅 六十三年游幻海 收因結果渾歸眞 根塵脫盡無餘物 撒手便行劫外身 喚云中白尊靈 還果如此麽 若果如此 出生入死 得大自在 其或未然 且聽末後一句 夜靜不勞重借月 玉蟾常掛大虛中.'

43) 覺璉錄, 「爲申白大禪師撒骨」, 『나옹화상어록』, '灰飛大野 骨節何安 驀地一聲 始到牢關 咄 一點靈光非內外 五臺空□白雲閑.'

44) '那迦'는 '티끌 하나 붙을 수 없는 자리'라는 의미로서 '부처 자리'를 뜻하며, 요사채로 쓰이는 那迦院이다.

45) 朴彭年(1417-1456), 「送雪京遊方序」, 『朴先生遺稿』 文, '今於臺山…且此山懶翁所居那迦寮 今猶在焉.' 那迦寮는 부처님이 계신 곳인 부처님 도량이라는 의미로 那迦室 또는 那迦院이라고도 하였다.

46) 『史記』 卷61, 伯夷列傳.

47) 丁若鏞(1762-1836), 「金柏谷讀書辯」, 『茶山詩文集』 卷12, 辯, '金柏谷讀書記 記讀諸書之數 而史記伯夷傳至一億一萬三千蕃.'

48) 金得臣(1604-1684), 「懶翁錫杖歌」, 『柏谷先祖詩集』 冊4, 七言古詩, '錫杖之長六尺強 其體堅確其性剛 我初見之光如漆 我更叩之聲鏗鏘 流傳不失以至後 于今二百餘年久 當時懶翁携遠行 南北東西不離手 **五臺**金剛與智異 勝致最冠震朝地 每向諸山飛錫去 放逸誠如脫衒驥 或登絶頂必爾持 或踏層厓必爾隨 卓處或看白雲出 曳時或破蒼苔滋 蟬蛻肉身敎示寂 蓮界惟餘此一錫 法身西入天竺國 牧老東歸目所擊 此說已塗衆人耳 異事應傳萬萬祀 得無鬼物爲守護 赤藤桃竹難爲比 錫杖兮錫杖兮豈伊爾獨 世人諳蛇皮履兮且留神勒庵.'

으며 삼인을 걸어 두었다고 하여 삼인봉(三印峯)이라고 하였다'고 한다.[49] 삼인봉은 조선 후기 문인 삼연 김창흡(1653-1722)도 오대산 기문에서 환희령(歡喜嶺)이라고 하였는데[50] 환희령은 오대산 안산(案山)이라고 하였다.[51] 나옹은 오대산 안산인 환희령이 보이는 북대 상두암에서 수도하였다. 『산중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유추할 수 있다.

> 서북쪽으로 수십 걸음을 오르니 상두암인데, 더욱 바람을 감추고 있었고 탁 트이게 뚫려 있었다. 삼인봉으로 안산(案山)으로 삼아 진실로 도인이 수도하는 곳이었으며, 또한 빈 벽에는 나옹의 진영이 걸려 있다.[52]

『오대산사적기』「아조본산사적(我朝本山事蹟)」[53]에서도 '오대산 서북쪽으로 수십 걸음을 오르니 상두암인데, 더욱 바람을 감추고 있었고 탁 트이게 뚫려 있었다.'고 하며 오대산 상두암을 강조하였다.

나옹은 중대에서 머물면서 다음과 같은 「제오대산 중대(題五臺山 中臺)」라는 가송을 다음과 같이 읊기도 하였다.

> 지팡이 짚고 한가히 노닐면서 묘봉(妙峯)에 오르나니, 성현의 끼친 자취가 본래 공하지 않는구나.
> 신비한 천연의 경계가 막힘도 없어, 수만 골짝 솔바람이 날마다 지나가네.[54]

---

49) 蓮潭有一(1720-1799), 『釋典類解』, '五臺山(其二可以鎖六猿 六猿 六淺也 其實一猿也 如房中有一猿而此房有六窓 自六窓一時俱喚 則自六牕一時具應 以喩一意淺 應眼爲眼淺 應耳爲耳淺 餘鼻舌身等識 皆一意識之作用也 故六識 其宗一意也 其五前峰三印桂香 恭愍王遣三相 訪懶翁于此山時 三相掛印于此峯云云)'

50) 金昌翕, 「五臺山記」, 『三淵集』 卷24, 記, '午飯 向北臺…又越一脊 乃到北庵 高深曠朗 捻有諸勝 比諸中臺 渾厚不及而疎豁過之 入望遙山 空翠接天 似是太白近地 而環之以疊嶺複嶂 最近者歡喜嶺 一名三印峰 拱向有情 適又景色明遠 天宇泬寥 萬楓曜日紅 遍院落有木 杉葉松身而皮微青 儼然攢立 半山皆是木也 所謂甘露水活活注槽中 味同玉溪 除是易牙 方辨淄澠耳 少憩蒲團 白霧冪山 坌入禪室 咫尺不可辨 爭喜到菴之早 得悉領略也 菴主竺敬曾識面於雪岳 入山得信息 値往中臺 悵若有失也.'

51) 참고로 환희령은 금강산 태백산 등지에 있으나 오대산에도 있다.

52) 丁時翰(1625-1707), 김성찬 역, 「1687년 10월 초10일」, 『우담선생문집』 권11(서울: 국학자료원, 1999), p.278, '西北上數十步有象頭菴 尤藏風通澗 以三印峰爲案 眞道人修道之所 而亦空壁掛懶翁翁畫相.'

53) 韓國木簡學會 編, 앞의 책 참조.

이와같이 나옹은 중대 상원사에서도 머물렀던 듯하다. 상원사의 응진전에는 나옹이 증명 불사해서 조성한 나한상이 있으며[55], 그 응진각[응진전] 동쪽에 나옹이 심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56]

나옹은 오대산 북대 상두암 인근 나옹대에서도 머물렀다. 상원사에서 10여리쯤 눈길을 밟아 올라가면 바로 왼편에 북대 미륵암(상두암)이 나오며, 그 부근에 나옹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나옹이 수행을 하던 곳이었다.[57] 나옹대는 설잠 김시습의 시에 나온다.

> 북대에는 4월에도 눈이 쌓였는데, 푸성귀 구릿대 흙을 이고 나오네,
> 나옹대 가에 구름 높이 있어, 높고 깊고 아득하여 헤아리기 어렵네. [58]

김시습은 1460년(세조 6) 봄에 관동지방으로 향하였고,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사에 머물면서 나옹의 향반(香槃)과 승상(繩牀)을 참배한 후 시를 남겼다.[59] 나옹은 상두암(미륵암) 앞의 산자락에 있는 나옹대에서 중대 적멸보궁을 바라보며 수행했다고 한다. 이렇듯 나옹은 오대산에 주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대산사를 중창하는 등 불사를 하였다. 고운암(孤雲菴)의 목조좌상의 개금불사 조성기[60]에 의하면, 고운암은 '홍치 8년 임인 봄[洪治八年壬寅之春]에 나

---

54) 覺雷錄「題五臺山 中臺」,『나옹화상가송』:『한국불교전서』6, p.101, '策杖優遊上妙峰 聖賢遺跡本非空 天然異境無間隔 萬壑松風日日通.'

55) 混元世煥(1853-1889),『混元集』卷之二 金剛錄, '至三十里上院庵 庵在寺上 而相距三十里也 大雄殿 應眞殿 皆金字扁額 改彩不遠 尊像巋然 丹艧潑眼 翼寮樓閣 煥焉如新 羅漢尊像 淸心道骨 肥膚氷雪 有願必遂 卽懶翁和尙叅證造像也.'

56) 鄭基安(1695-1767),「遊楓岳錄」,『晩慕遺稿』卷6, 雜著, '上院 院東有應眞閣 閣之東有樹 一大一小 葉如側栢而柔 僧言此乃懶翁手植 而翁去時謂曰此木死吾當死 死而復生 吾復出世 數十年前忽枯死 今復生葉 陪吏亦言見其柯葉朽槁云 少頃下山 還到月精寺,'

57) 混元世煥(1853~1889),『混元集』卷2, 金剛錄, '宿上院庵 翌日踰北臺 有懶翁和尙 明心鍊道之所.' ; 사찰문화연구원,『한국의 전통사찰』제1집(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7), pp.413-414.

58) 金時習(1435-1493),「五臺山」,『梅月堂詩集』卷4, 詩 山岳, '北臺四月積殘雪 靑蔬白芷戴土出 懶翁臺畔有高雲 岑崟幽邃杳難測.'

59) 김시습,「懶翁裴包(2首)」,『매월당집』권10.

60) 2001년 12월에 고운암의 목조좌상의 개금불사 과정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月精寺北臺孤雲庵木造釋迦如來坐像및腹藏遺物」) 여기에는 조선후기인 1710년(숙종 36)에 작성된 조성기의 앞 부분에 발원문이, 뒷 부분에 복장물의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옹이 초창'하였다고 한다. 이 좌상의 조성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나옹이 고운암을 창건하였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61] 『오대산사적기』「아조본산사적」에는 '고려가 멸망하자 사(師)는 (오대)산의 북대 숨어서 성상(聖像)을 빚고 난야[蘭若]를 개창했다.'[62]고 하였는데 바로 고운암의 중창을 지칭하는 듯하다.

그리고 조선 말인 1833년의 대화재 이후 중건시 작성된 「산중산기(山中散記)」에 의하면, 나옹이 도솔암과 관음암을 중창하였다고 한다.

> 북대 상왕산(象王山)과 동대 만월산(滿月山)은 모두 신라 때 육결사(六結社)가 있던 옛 터전이다. 국초에[63] 나옹화상이 주석할 때 북대의 도솔암(兜率菴), 동대의 관음암(觀音菴)을 중건·보수하여 보배로운 가람으로 만들었다. 모두 위봉(危峰)의 정상 등나무 덩굴 안에 있으니 도에 뜻을 둔 이가 아니면 그 사이에 머물러 살 수 없을 것이다.[64]

이러한 기록은 현재로서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매우 주저된다. 아래에 예시하는 기록에서 보듯이 동대 관음암이 중창·보수된 것은 나옹의 입적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 일찍이 강릉 오대산의 동대에 관음암을 중창하여 끝내고,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전에 절을 중창하게 되면 반드시 목은 선생에게 기문을 청하였고 목은께서도 사양하지 않고 써주셨습니다. 지금 관음암을 짓는데, 목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대는 목은의 문인이니, 사양하지 말고

기재되어 있다. 고운암 목조 석가 불상은 1710년(숙종 36) 北臺 孤雲庵에서 廣習 등 3인에 의해 조성되었다. 본래 삼척의 신흥사에서 봉안되어 오다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봉안하고 있다. 권지현 남원준, 『월정사 성보박물관 도록』, 월정사박물관, 200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61) '洪治'라는 연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옹의 생존시기에 있었던 '壬寅'年인 1362년으로 추정된다. 나옹이 오대산에 1360년부터 1361년 무렵에 머물면서 조성한 듯하다.

62) 『역주 오대산사적기』(韓國木簡學會 編, 앞의 자료집, p.18, '恭愍王封爲國師. 及高麗亡遯於是山之北臺塑塗聖像 開創蘭若.'

63) 나옹은 1376년에 입적하였으므로 국초라는 시기는 오류이다.

64) 월정사, 『역주 오대산사적기』(韓國木簡學會 編, 앞의 자료집), p.55.

기문을 지어 주시오."라고 하였다.… 그 동안에 사(師)가 또 불상을 만들고 경문을 인출한 것이 자못 많아, 내가 또한 일찍이 그 인출한 경문 여러 부의 발문[跋]을 지었다.[65]

이와같이 나옹의 문도 지선(志先)은 동대 관음암을 중창하고 불상을 제작하여 봉안하고 경문 여러 부를 인출하였다. 1339년(충숙왕 복위 8) 월정사에서 대장경을 인출[66]한 이후 다시 인경된 것이다. 지선은 사미승 때부터 여러 곳의 절을 중창하였으며, 여주 신륵사에서 나옹의 문도들과 함께 대장각 불사 및 인경 사업 등 스승 나옹의 추념 사업을 전개했다.[67] 지선이 동대 관음암을 중창한 시기는 스승 나옹의 추념 사업에 동참한 후 이색이 죽은 지 얼마 않은 때이다(1402년 이전).[68] 따라서 동대의 관음암은 나옹이 중건한 것이 아니라 나옹의 문도 지선이 중창한 것이다. 북대 도솔암의 중창도 역시 나옹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옹이 두 사찰에 주석하였을 것이다.

Ⅳ. 나옹과 오대산 북대 불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옹은 오대산사에 주석하였으며 중창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고려말 오대산 북대 불교에 어떠한 의의를 지닌 것일까?

나옹은 상두암에 주석하면서 양평 용문산에 주석하고 있었던 고승 고담(古

65) 權近(1352-1409), 「五臺山 觀音庵重創記」, 『陽村集』 卷14, 記類, '道人志先…嘗於江陵府五臺山之東臺 重創觀音庵 訖功…今之營觀音庵也 牧隱已矣…其間師又造佛印經頗多 予亦嘗跋其所印經數部矣.'

66) 1339년 월정사에 대장경을 봉안하는데 왕비와 信安君 李安壽, 재상의 부인 김씨 등이 후원하였다. 대장경의 봉안법회[己卯之會]에 5천 명의 대중이 모였다[會衆五千指]고 한다. 황인규, 앞의 글, 2012, p.262.

67) 이색(1328-1396), 「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 『조선금석총람』 상, '普濟尊者眞堂詩幷序 釋志先予未之相識也 國矘里之老媼引之來其言 曰吾師禪覺之塔'; 이색, 「안심사지공나옹비」, 『조선금석총람』 상, '吾石鐘幸併著之獨潤筆菴凡七所皆爲先生作爲吾師也志林於金剛山 勝明於雉岳山覺明於小白山覺寬於四佛山志先於龍門山勝哲於九龍山覺淸於此山妙覺舊基是已.'

68) 權近(1352-1409), 「五臺山 觀音庵重創記」, 『陽村集』 卷14, 記類, '五臺山之東臺 重創觀音庵 訖功…今之營觀音庵也 牧隱已矣.'

潭)과 교유했다.[69] 고담은 중국 임제종 고승 적조 현명(寂照玄明)이며, 당시 고려를 방문하고 있었다.[70] 나옹은 오대산 상두암에서 원의 고승 고담에게 다음과 같은 게송을 주었다.

> 임제의 한 종지가 땅에 떨어지려 할 때, 공중에서 고담 노인네가 불쑥 튀어나왔나니, 삼척의 취모검을 높이 쳐들고, 정령들 모두 베어 자취 없앴네.[71]

이러한 게송은 『나옹화상어록』이나 『나옹화상가송』에는 실리지 않고 행장에만 기록되어 있다. 어록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게송도 상두암에서 고담에게 준 것이다.

>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몇 해나 지났던가, 맑고 깊고 밑이 없어 공겁보다 먼저이다. 매번 큰 물결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이와같이 맑고 고요하며 가득히 고여 그 자체 완전하네.[72]

이미 선학이 밝힌 바와같이 고담은 양평 미원현 은성사(隱聖寺)에 왔다가 「태고암가」를 읽고 그를 만나고자 양평 소설산으로 가서 교유하였으며[73], 오

---

69) 金時習, 『梅月堂集』 卷4 ; 覺宏, 「나옹화상행장」, 『나옹화상어록』 : 『한국불교전서』 6, 22쪽, '至庚子秋 入臺山象頭菴居焉 時浙僧古潭 來住龍門山 通信書 師以頌答曰 臨濟一宗當落地 空中突出古潭翁 把將三尺吹毛劍 斬盡精靈永沒蹤 潭以白紙一丈答之 外封書君子千里同風六字 師受之 笑而擲之 侍者開紙乃空紙也 師以筆墨二物答之 辛丑冬.'

70) 그 후 태고가 1367년 迷原縣 隱聖寺에 왔다가 太古菴歌를 읽고 이를 보물처럼 여기고 小雪菴으로 太古를 뵙고 스승의 예우를 드렸다. 태고는 그를 쓸만한 그릇이라 여기고 金襴袈裟와 禪捧을 주고 그를 보냈다. 維昌, 「태고화상 행장」, 『태고화상어록』 상 ; 「寄無極和尙 江南人」, 『태고화상어록』 하 : 『한국불교전서』 6. '西來一曲沒人知 雖有伯牙無子期 獨坐寥寥向深夜 透簾殘月徹禪衣.' ; 허흥식, 「제2장 나옹나옹」,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지공선현』(서울: 일조각, 1997), p.170-171.

71) 覺宏錄, 「나옹행장」, 『나옹화상어록』 : 『한국불교전서』 6, '臨濟一宗當落地 空中突出古潭翁 把將三尺吹毛劍 斬盡精靈永沒.'

72) 「古潭」, 『懶翁和尙歌頌』 : 『한국불교전서』 6, '春去秋來知幾年, 澄深無底劫空 先每經淘汰常如此 湛湛溶溶一體全.'

73) 허흥식, 「제 2장 나옹혜근」, 앞의 책, 1997, pp.170-171.

대산의 나옹도 교유하였다. 이렇듯 나옹은 원에서 지공과 평산을 비롯한 임제종 고승과 교유하며 중국의 새로운 임제종 선풍을 수용하였는데, 오대산에서도 고려에 온 임제종 고승 고담과 교유하면서 그 선풍을 선양하였던 것이다. 이는 오대산 불교 뿐만 아니라 고려말 불교계에서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원의 불교계 뿐만 아니라 몽산 덕이의 제자 철산 소경의 고려 방문에 이은 임제종 고승의 교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옹 뿐만 아니라 그의 문도들도 오대산사에 머물기도 하였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설악(雪嶽)상인은 나옹의 제자이다. 나옹은 당초 신광사에 머물다가 원적사(圓寂寺)로 거처를 옮겼으며, 다시 노골산과 청평산과 오대산의 산사를 거쳐 송광사에서 주석하였다. 그리고 송광사에서 회암사로 왔다. 회암사를 떠나 서운산과 길상산 등의 산사를 돌아다닌 뒤에 회암사에 다시 돌아왔다. [74]

위의 인용한 기문에서 보듯이 부훤당(負暄堂) 각운 설악(覺雲雪嶽)은 무학과 같이 나옹의 주요 행적을 좇은 대표적인 승려인데, 나옹의 시자로서 당연히 오대산에서도 함께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옹은 제자 지선(志詵)과 오대산에서 함께 하였다. 목은 이색은 지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문을 남겼다.[75]

> 선(詵)상인은 내가 두 번째 여강에서 만났는데, 대개 벼슬하는 집안이다. 글을 읽어 문장을 본업으로 하다가 나이 21세에 고향의 승려를 따라 금강산 구경을 가다가, 도중에서 나옹이 오대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말하

74) 李穡(1328-1396),「負暄堂記」,『牧隱文藁』卷6, 記 ;『東文選』卷75, 記, '雪嶽上人 懶翁弟子也 師之卓錫神光 移于圓寂 于露骨于淸平于五臺 而住松廣 自松廣而檜巖 由檜巖而瑞雲吉祥諸山 然後復住檜巖也 上人 皆從之 朝夕熏炙 頗有所得.'

75) 이에 대한 기문을 목은 이색이 지었는데, 이색이 죽자 권근에게 부탁하여 이 기문을 1402년에 짓게 되었다.

였다. "산 구경도 소원이지만 출가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렵고 나옹을 만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나는 나옹을 따라 출가한 다음에 산을 구경하겠다." 하고, 드디어 오대산에 들어가 나옹에게 간청하였다. 나옹이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다.[76]

지선(志詵)은 21세 때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나옹이 오대산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고 출가하였던 것이다. 나옹이 오대산에 있을 때 그의 문도들이 추종하여 출가한 사례이다. 그만큼 당시 불교계는 물론이고 유자들의 사회에서도 나옹의 명성이 자자했던 듯하다.

또한 나옹의 문도 석영 로암도 오대산에 주석하였다.

석영 로암(釋英露菴)은 나옹의 제자이다. 오대산을 유람하다가 상원사(上院寺)에 들어와 승당이 터만 있고 집이 없음을 보고 곧 탄식하며 말하였다. "오대산은 천하의 명산이요, 상원은 또한 큰 사찰이다. 승당은 성불한 곳이요, 시방의 운수 도인이 모이는 곳이다. 사찰이 없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사방으로 쫓아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인연을 맺기를 구걸하였다. 판서 최백청(崔伯淸)의 부인 안산군 부인(安山郡夫人) 김씨가 듣고 기뻐하여 최씨와 함께 모의하여 희사하였는데, 부인이 희사한 바가 컸다. 병진년(1376, 우왕 2) 가을에 시작하여 정사년(1377년) 겨울에 공역을 마쳤다.[77]

위의 인용한 기문에서 보듯이 나옹의 문도 석영 로암도 1376년 상원사를 중창하기 앞서 오대산에 주석하였다.

이렇듯 나옹이 북대 상두암에 주석한 이후 여말 선초기에 나옹의 문도들은

---

76) 李穡(1328-1396),「送詵上人序」,『牧隱文藁』卷8, 序 :『東文選』卷87, 序, '詵上人 予再遇之驪江之上 蓋仕族也 讀書業文 年卄又一歲 隨鄕僧游金剛山 道聽懶翁在臺山曰 游山雖所願 出家尤難 得懶翁爲尤難 吾且從翁出家 然後游山耳 遂入見懇請 翁爲之落其髮.'

77) 이색,「五臺上院寺僧堂記」,『牧隱文藁』卷6 ;『東文選』卷75, '釋英露菴 懶翁弟子也 游五臺入上院 見僧堂有基而無屋 乃嘆曰 臺山 天下之名山 而上院又大刹也 僧堂 成佛之所 十方雲水之所會也 而可無乎 於是馳走募緣 崔判書伯淸之室安山郡夫人金氏聞之喜 與崔謀出錢以施 而夫人所自施大多 始於丙辰秋 功訖於丁巳冬 其冬.'

그에 대한 추념 불사를 전개하면서 '나옹의 가사와 불자 각 1개는 오대산에 봉안하였다.'[78] 그리고 이어 중대 진여원이었던 상원사를 중심으로 서대 수정암, 염불암, 사자암, 동대 관암음과 남대 아래의 영감암 등 오대산의 주요 산사가 중창되어 신라의 오대산 불교가 재현되었다고 하겠다.[79]

나옹은 1360년 무렵 오대산 고운암에 머물면서 신성암(神聖菴)에 머물고 있던 환암과 교유하였다.[80]

> 공민왕이 사(師)의 행적이 올바른 것을 높이 여겨서 회암사에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곧 금오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대산에 들어가 신성암에 주석하였다. 이때 나옹도 고운암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조우하여 도의 요지를 질의하였다. 나옹은 뒤에 금란가사(金襴袈裟)·상아불(象牙拂)·산형장(山形杖)을 사(師)에게 주어 표신을 삼았다.[81]

위의 인용한 기록은 환암의 비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다. 환암은 회암사 주지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금오산으로 갔다가 오대산에 들어가 나옹과 교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옹은 앞서 언급한 고담 뿐만 아니라 오대산 고운암에 머물면서 교유한 환암에게도 게송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 즉, 『나옹화상가송』에 나오는 「환암(幻菴)」,「환암이 오위주송을 베껴 가지고 와서 보라 하기에 그 앞에 제(題)함(幻菴傳寫五位註頌來看因以題前)」, 「스승을 뵈러 가는 환암장로를 보내면서(送幻菴長老謁師翁)」, 「환암장로의 산거(山居)에 부침(寄幻菴長老山居)」가 바로 그것이다.[82] 그 가운데 앞의 두 수는 오대산에서, 뒤의 두 수는 환암이 장로로 칭해질 때 준 듯하다. 둘째 가송에서 보듯이 환암이 조동종의 오위주송(五位註頌)을 지어 가르침을 나눈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83] 환암

78) 이색, 「安心寺舍利石鐘碑」, 『조선금석총람』 상, '袈裟拂並一在臺山.'

79) 황인규, 앞의 글, 2012, p.255-286 참조.

80) 覺宏錄, 「나옹행장」, 『나옹화상어록』.

81) 權近(1352-1409),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幷序」, 『陽村集』 卷37, 碑銘類 ; 「忠州 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 하, 서울: 일한인쇄소, 1919.

82) 나옹, 『懶翁和尙歌頌』 : 『한국불교전서』 6.

과 나옹이 조동종의 선사상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대산 불교에 있어서 조동종의 전파와 더불어 환암이 나옹과 교유한 사실 뿐만 아니라 신표를 전해주어 환암이 나옹의 학적인 문도일 개연성이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84]

나옹은 1369년 9월부터 그 해 말까지 청평사 주지를 지내다가 사퇴하고 오대산 남대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영감암(靈鑑菴)[85]에 머물렀다. 영감암에는 나옹의 진영이 봉안되었다.[86] 나옹이 그 무렵 오대산에 입산하게 된 것은 지공의 신표인 가사와 서신을 전해 받고 지공의 유훈인 수기를 실천에 옮기고자 제1차 오대산 입산과 마찬가지로 잠시 머물렀던 것이 아닐까 한다.[87]

나옹은 오대산에 머물면서 오대산사, 특히 그 북대 불교를 중흥하고자 하였다. 고려말 문인 목은 이색은 오대산은 천하의 명산[88]이라 하였고 조선초 문인들도 오대산을 '천년의 승지라 보배로운 곳'[89] 이라고 하였다. 특히 오대산의 샘물은 각각 그 이름이 있는데, 북대는 옥계수(玉溪水), 서쪽은 우통수(于筒水), 동쪽은 청계수(靑溪水), 북쪽은 감로수(甘露水), 남쪽은 총명수(聰明水)라고 한다.[90] 이 다섯 물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므로[91], 나옹은 이러한 오대산 북대의 옥계수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게송을 남겼다.

---

83) 나옹, 「幻菴 傳寫五位 註頌來看 因以題前」, '曹洞宗風事若何 崑崙白鷺兩交加 君臣偏正能廻互 不坐那邊是作家.'

84) 이 부분은 환암이 나옹의 문도라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며, 나아가 환암이 사굴산문출신이라는 등 조계종 법통상의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85) 覺宏錄, 「나옹행장」, 『나옹화상어록』, '己酉(1369년, 공민왕 19) 九月 以疾辭退 又入臺山 住靈鑑菴.' ; 김수온, 「靈鑑菴重創記」, 『拭疣集』 卷2, 記類, '其南臺之南 有號靈鑑菴 昔普濟尊者 嗣法平山處林禪師 暨其東還 遂入臺山 寓于是菴.'

86) 『涵虛堂得通和尙語錄』.: 『한국불교전서』 7. '供養五臺諸聖 詣靈鑑菴 薦羞懶翁眞影信宿其菴.'

87) 覺宏錄, 「나옹행장」, 『나옹화상어록』, '請住淸平寺 是年冬普菴長老 親受指空遺囑袈裟一領手書一紙 到寺授之 師乃披 拈香普說 己酉九月 以疾辭退 又入臺山 住靈感菴.'

88) 李穡, 「五臺上院寺僧堂記」, 『牧隱文藁』 卷6, 記 ; 『동문선』 권75, 기.

89) 李荇(1478-1534), 「月精寺」, 『容齋集』 권2, 五言律, '寶地千年勝.'

90) 金昌翕(1653-1722), 「五臺山記」, 『三淵集』 卷24, 記, '蓋五臺泉各有號 此爲玉溪水 西爲于筒 東爲靑溪 北爲甘露 南爲聰明云.'

91) 姜再恒(1689-1756), 「五臺山記」, 『立齋遺稿』 卷12, 記, '臺各有號 此爲智爐峯 東爲滿月峯 南爲麒麟峯 西爲長嶺峯 北爲象王峯 臺各有泉 泉各有號 此爲玉溪水 東爲靑溪水 西爲于筒水 南爲聰明水 北爲甘露水 五泉合流至金剛淵 爲漢水上游云.'

티 없는 바탕은 지극히 영롱한데,
양쪽 언덕에는 맑은 바람 솔솔 불며 지나간다.
한 자 구슬의 물결치는 광채를 누가 값을 정할 것인가,
신령한 근원은 깊고 멀어 무궁함을 내놓네.[92]

나옹은 중대의 상원사에 나무를 심어 불법의 중심임을 천명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옹은 아마도 고향인 영덕에서 출가시 그랬던 것처럼 오대산의 중심인 중대 상원사 2그루의 크고 작은 나무를 심고는 "결연히 나의 시기가 지나서 이 나무가 죽으면 나도 마땅히 죽겠지만 죽은 후에 다시 살아서 나를 다시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말 선초기의 오대산 북대 불교는 나옹의 주석 이후 상두암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중국 임제종 고승과 교유하였으며 나옹 자신이 창건한 고운암에 머물던 환암과 교유하면서 북대 불교의 형성에 큰 자취를 남겼다. 나옹은 오대산 상원사와 북대 일대의 나옹대에서 활동하였으며, 남대 아래 영감암에서도 주석하였다.

나옹의 입적후 문도들에 의해 신륵사와 회암사를 중심으로 하여 용문산과 묘향산 등에서 전국적인 추념사업이 전개되었다. 오대산에서도 나옹을 추종하는 그의 문도 설악과 지선, 석영 로암 등에 의해 추념 불사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오대산 각 대를 중심으로 조선초 까지 중창 불사를 일으켜 신라 시대 오대산 불교 성립 이후 오대산 불교의 중흥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북대도 오대산 불교 중흥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대산 불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현재까지 오대산을 금강산과 더불어 명산 및 불교 신앙의 요람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

92) 「玉磎」, 『懶翁和尙歌頌』 : 『한국불교전서』 6, '無瑕正體極玲瓏 兩岸淸風細細通 尺璧波光誰定價 靈源深遠出無窮.' 그런데 玉溪 宜上人(權近, 「玉溪詩序」, 『陽村集』 卷20, 序類)에게 내린 게송일 수 있으나 어록의 전후에 실린 게송들이 자연을 읊은 것이기 때문에 인물에게 내린 게송은 아닌 듯하다.

93) 鄭基安(1695-1767), 「遊楓岳錄」, 『晩慕遺稿』 卷6, 雜著, '此木死吾當死 死而復生 吾復出世 數十年前忽枯死.'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나옹의 오대산사 주석과 중창, 나옹의 오대산 북대 불교에 대하여 천착하여 보았다.

나옹은 먼저 귀국한 문도 무학과 함께 천성산 원효암 등 지방을 유력하다가 고대 흥법의 상징인 오대산에 주석하였다. 나옹은 사굴산문 출신으로 그 발상지인 오대산에서 두 차례 주석하였다. 스승 지공의 유지를 받들어 양주 회암사를 중심으로 흥법하기 앞서 오대산에 머물렀던 듯하다. 나옹의 어록에 의하면 나옹은 귀국후 전국의 명산 대찰을 유력하면서 오대산에 현재의 미륵암인 북대 상두암에 주석하였으며, 이 때 중국의 고승 고담과 교유했으며, 고운암을 중건하고 머물면서 신성암에 주석하였던 환암 혼수와 교유했다. 그리고 후에 오대산 영감암에 주석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말 오대산에는 당시 불교계에서 수용하고 있었던 임제종을 전파하였으며, 나옹의 문도 뿐만 아니라 환암과 교유하여 조동선풍을 수용하여 오대산 불교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기문에 의하면 나옹은 중대에서 시를 남겼으며, 삼인봉을 안산으로 하여 수도하였으며, 상원사에서 10여 리쯤에 자리한 북대 미륵암에 주석하면서 그 부근에 위치한 나옹대에서 적멸보궁을 바라보며 수행했다. 나옹은 북대 고운암을 중장하고 머물면서 신성암에 머물고 있던 환암과 교유했다. 『오대산사적기』에 의하면 나옹이 북대에 숨어서 성상(聖像)을 빚고 난야(蘭若)를 개창했다는 것도 고운암 중창을 지칭하는 듯하다.

조선말의 기록인 『오대산사적기』「산중산기」에 의하면 '나옹 화상이 주석할 때 북대의 도솔암, 동대의 관음암을 중건·보수하여 보배로운 가람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나옹이 주석하였던 듯하다.

나옹은 오대산 중대의 옥계수를 바라보며 게송을 남겼으며, 출가지인 영덕에서 출가시 그랬던 것처럼 오대산의 중심인 중대 상원사 2그루의 크고 작은 나무를 심고 결연히 불법의 의지를 다졌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나옹이 상두암

등 북대 일대에 머물면서 일으킨 오대산 흥법 정신은 그의 문도에게 계승되어 신라 오대산 불교를 중흥시키게 되었으므로 오대산 북대 불교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高麗史』: www.history.go.kr
- 『茶山集』:『韓國文集叢刊』88 : http://db.itkc.or.kr
- 『淡庵逸集』:『韓國文集叢刊』3 : http://db.itkc.or.kr
- 『東文選』: http://db.itkc.or.kr
- 『東師列傳』:『韓國佛教全書』10 : https://kabc.dongguk.edu
- 『懶翁和尙語錄』:『韓國佛教全書』6 : https://kabc.dongguk.edu
- 『晩慕遺稿』:『韓國文集叢刊』續 卷73 : http://db.itkc.or.kr
- 『梅月堂集』:『韓國文集叢刊』13 : http://db.itkc.or.kr
- 『牧隱藁』:『韓國文集叢刊』3~5 : http://db.itkc.or.kr
- 『朴先生遺稿』:『韓國文集叢刊』9 : http://db.itkc.or.kr
- 『柏谷集』:『韓國文集叢刊』104 : http://db.itkc.or.kr
- 『白谷集』:『韓國佛教全書』7 : https://kabc.dongguk.edu
- 『白雲和尙語錄』:『韓國佛教全書』6 : https://kabc.dongguk.edu
- 『四佳集』:『韓國文集叢刊』10 : http://db.itkc.or.kr
- 『史記』: https://ctext.org/shiji/zh
- 『三國遺事』:『韓國佛教全書』6 : https://kabc.dongguk.edu
- 『三淵集』:『韓國文集叢刊』165~157 : http://db.itkc.or.kr
- 『釋典類解』:『韓國佛教全書』10 : https://kabc.dongguk.edu
- 『拭疣集』:『韓國文集叢刊』9 : http://db.itkc.or.kr
- 『陽村集』:『韓國文集叢刊』7 : http://db.itkc.or.kr
- 『愚潭集』:『韓國文集叢刊』126 : http://db.itkc.or.kr
- 『儒釋質疑論』:『韓國佛教全書』7 : https://kabc.dongguk.edu
- 『霽亭集』:『韓國文集叢刊』3 : http://db.itkc.or.kr
- 『朝鮮金石總覽』(조선총독부 편): http://gsm.nricp.go.kr
- 『春亭集』:『韓國文集叢刊』8 : http://db.itkc.or.kr

• 『涵虛堂語錄』: 『韓國佛敎全書』 7 : https://kabc.dongguk.edu
• 『虛靜集』: 『韓國佛敎全書』 9 : https://kabc.dongguk.edu
• 『混元集』: 『韓國佛敎全書』 11 : https://kabc.dongguk.edu

2. 2차자료

〈단행본류〉

• 김창숙,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연구』, 서울: 민족사, 1999.
• 자현, 『한국 선불교의 원류 지공과 나옹 연구』, 서울: 불광출판사, 2017.
• 韓國木簡學會 編, 『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 平昌: 五臺山 月精寺, 2014.
• 허흥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지공선현』, 서울: 일조각, 1997.
•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1.

〈논문류〉

• 강호선, 「고려말 나옹혜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p.1-358.
• 김두진, 「신라하대 굴산문의 형성과 그 사상」, 『성곡논총』 제17집, 서울: 성곡언론문화재단, 1986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서울: 일조각, 2007). pp.249-301.
• 김창현, 「고려시대 금강산과 그 불교신앙」, 『지역과 역사』 제31집, 부산: 부경역사연구소, 2012, p.199-261.
• 염중섭, 「나옹에게서 살펴지는 '오대산불교'의 영향—나옹의 오대산행과 문수화엄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39집, 서울: 온지학회, 2014, p.175-210.
• 이철헌, 『나옹혜근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p.1-245.
• 허흥식, 「나옹의 사상과 계승자」상·하, 『한국학보』 제58·59집, 서울:일지사, 1990, p.121-143, p50-84.
• 황인규, 「고려전기 사굴산문계 고승과 선종계」, 『한국선학』 제9집, 서울: 한국선학회, 2004, p.91-125.
• _____, 「나옹혜근과 그 대표적인 계승자 무학자초」, 『역사와교육』 제5집, 서울: 역사와교육학회, 1997, p.1-38.
• 황인규, 「나옹혜근의 불교계 행적과 유물 유적」, 『대각사상』 제11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8, p.17-70.

• _____, 「여말선초 나옹문도의 오대산 중흥불사」, 『불교연구』 제36집, 서울: 불교연구원, 2012, p.255-286.
• _____, 「조선 중기 월정사와 상원사·적멸보궁」, 『역사와 교육』 제14집, 서울: 역사와 교육학회, 2012, p.149-172.
• _____, 「조선시대 오대산사와 고승」, 평창: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 기념세미나, 2011.

Master Naong and Bukdae of Odaesan Mountain - Buddhist History and Meanings of Odaesan Mountain in the Late Goryeo Dynasty

Hwang, In-gyu
Professor
History Education at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significance of Bukdae (北臺, North Dae), northern part of Odaesan Mountain after Naong Hyegeun (1320 ~ 1376) stayed at the temples in the area in the late Goryeo Dynasty.

Master Naong stayed twice at the temples in Odaesan Mountain, a symbol of ancient Buddhism. While staying at Sangdu-am (present Mireuk-am) Hermitage located in Bukdae, the northern part of Odaesan Mountain, he was associated with Godam from the Linji School (臨濟宗) of China, and also with Hwanam Honsu who rebuilt Goun-am Hermitage and stayed at Sinseong-am Hermitage. This is remarkable not only in the Buddhist history of Odaesan, but also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Later Naong stayed at Yeonggam-am Hermitage in Namdae, the southern part of Odaesan Mountain. He seemed to have vowed to revive Buddhism in Odaesan area.

According to the historical documents, Naong left a verse in Jungdae, center of Odaesan Mountain, and practiced facing Saminbong Peak. While staying at Sangdu-am Hermitage in Bukdae, he practiced at the nearby Naongdae, worshiping the Jeokmyeolbogung, a shrine for the Buddha's sarira. According to *Odaesan Sajeokgi* (五臺山事蹟記), Naong was said to have reconstructed Dosol-am in the North and Gwaneum-am in the East of the mountain, but it is not clear.

Naong composed a poem looking at Okgyesu spring, which flows through the Jungdae (中臺), the center of Odaesan Mountain, apparently vowing to promote Buddhism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s such, Naong wanted to stay at Buddhist temples in Bukdae, such as Sangdu-am Hermitage, to promote Buddhism in Odaesan area. His will was inherited by his disciples who revived Buddhism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Dynasties.

Keywords

Naong, disciples of Naong, Odaesan Mountain, Bukdae, Goun-am Hermitage

2020년 01월 31일 투고
2020년 03월 15일 심사완료
2020년 03월 23일 게재확정